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고소설 속 계모의 재해석

- <장화홍련전> 과 <김인향전> 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다 혜

고소설 속 계모의 재해석

- <장화홍련전> 과 <김인향전> 을 중심으로 -

The Reinterpretation of a Stepmother in Classical Novels

- with focusing on <Janghwahongryunjeon> and
<Kiminhyangjeon>

2014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다 혜

고소설 속 계모의 재해석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다 혜

정다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준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동향 및 연구방향	4
II . 고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 구성	9
1. 계모에 대한 이미지 구성	9
2.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미지 구성	13
III . <장화홍련전>에서 계모의 재해석	17
1. 외모로 인한 낙인	17
2. 외부인으로서의 소외	20
IV . <김인향전>에서 계모의 재해석	29
1. 경쟁에서의 패배	29
2. 생존의 욕구	33
V . 계모에 대한 작품 속 사회적 평가	36
1. 본보기식의 처벌	36
2. 지위 이상의 역할기대	39

VI. 결론 42

참고문헌 46

ABSTRACT

The Reinterpretation of a Stepmother in Classical Novels

– with focusing on <Janghwahongryunjeon> and <Kiminhyangjeon>

Jeong Da Hye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a novel, although distinguishing virtue and vice is ethical and universal in general cases, it considerably depends on readers' subjective judgement. The judgement can be changed by readers' social concepts and atmosphere of era. Even though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characters who are judged as evil ones are reassessed to better ones in these days, a stepmother who hates children by a previous marriage still has been assessed completely bad man.

This paper has the purpose which reinterprets 'stepmother's character in family novels of Korean traditional novels. This paper tries to change stereotypes by reconsidering why the stepmother killed children from ex-wife.

The stepmother in Korean traditional novels generally describes a evil and beautiful woman. On the other hand, the children from ex-wife is emphasized with good-hearted personality. The singularity of the children from ex-wife is a extraordinary phenomenon in birth and a dream about the birth of a child. This scene in some works is the intentional device of the author to emphasize the stepmother's misdeeds with the strong exposure of the children's tragedy. And it is seemed like a fixed image as the good and the evil.

There are many stepmothers appearance descriptions, among them <Janghwahongryunjeon>'s writer describes stepmother Heo's ugly appearance very specifically. So, she maybe has a complex of her appearance and it makes

her form bad character. Because of this labelling effect, people have preconceptions that she does something evil to the children by a previous marriage. Furthermore the family doesn't accept her as family members after giving birth to a baby. In this situation, she accumulates a complex and a sense of alienation and eventually she does something evil to explode these bad feelings.

In the novel <Kiminhyangjeon>, Jeong becomes a member of family which has three children by his former wife. And, Inhyang, one of these sons, fights Jeong for leadership. In this situation she shows typical oedipus complex. Because Inhyang's position in the family is so powerful Jeong has an inferiority complex. It makes her a neurotic patient. As a result, she does something bad to protect herself—defense mechanism.

For these reasons, we can conclude that most of stepmothers commit something evil. The society is cold and cruel to the second wife who has the unjust situation. They tried to appease a revengeful spirit of the children from ex-wife, but they didn't care about what she said. Rather, they punished her severely as an example by way of warning. Nevertheless, the stepmother was required to show dedication and do her duty by comparison with relatively low levels in family.

The stepmother cannot break common notion that they are the evildoer since the children was killed from the trick of stepmother in the novel and there are stepmother type family novels and these will be read. But there are some reasons she couldn't help acting like that.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someone is always evildoer and someday he or she will do something evil without looking before and after can make the other evildoer. Therefore, this paper wants to reinterpret figures of stepmother in traditional novel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nking outside the box.

I. 서론

1. 문제제기

고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소설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뚜렷한 선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들 역시 ‘선인’과 ‘악인’이 고정된 채로 진행되어 왔다. 그중 가정소설로 분류되는 고소설들은 가족중심적인 우리문화권에서 대부분 뚜렷하면서도 고정적으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왔다.

한편 어린 시절 전래동화로 접하는 고소설들은 일생에 걸쳐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계모가 등장하는 전래동화에서 대부분의 계부모와 자녀관계는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래동화 속 관계는 의례히 계부모는 악인으로, 자녀는 그에 대립되는 선인으로 구분시킨다. 이는 현실 속에서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¹⁾

소설 속에서 선악이 구분된다는 것은 주된 사건 속에서 도덕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그 판단은 소설을 읽는 독자²⁾들의 도덕에 관한 사회적 관념이나 시대분위기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작자·연대 미상의 <홍부전>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체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윤리소설로서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의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아이들의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다. 한마디로 홍부는 ‘선인’, 놀부는 ‘악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1) 공인숙류안진,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p.9.

2) 조선 후기 고소설의 대부분은 작자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소설의 향유방식이 필사를 통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는 필사자가 ‘독자’로서 작품을 접하고 이를 그대로 베껴내기도 하지만 사적인 판단에 따라 개작하기도 하여 ‘작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소설의 향유층은 ‘독자’이면서 동시에 ‘작자’가 될 수 있다. 서유석은 논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향유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소설에 개입하는 입장의 작자와 수용하는 입장의 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작자’와 ‘독자’를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5-1,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p.134.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경제 자본사회와 갈수록 작아지는 가족단위의 문화양상 속에서 <홍부전>에서의 놀부는 자수성가한 능력자이지만 홍부는 대책없는 가족계획의 실패, 경제적 능력을 쌓기보다는 형제라는 이유로 의존만 하려는 무능력자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게다가 판소리 대본의 정착인 신재효본 <박타령>에서는 빈둥대던 홍부가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밥을 빌러 오는 아내에게 주제 넘는 가장태를 하느라 매질까지 하는 무능력한 가장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³⁾

다른 예로, <사씨남정기>의 여자주인공인 사정옥과 교채란이 있다. <사씨남정기>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실존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첩으로 들어온 교씨는 자신의 소생인 아이까지 희생하며 사씨를 몰아내고 남편 유연수마저 귀양보내기에 이르는 알아주는 ‘악녀’로 평가되어 왔다.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 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근자에 와서는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하고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교씨는 독자의 선입견과는 달리 미모와 여공, 행실이 남달라 장점이 많은 여성이었으며 총명하고 민첩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따르고 사씨를 섬기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조건에 따라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점차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⁴⁾ 또한 사씨의 경우에는 ‘현숙한 부인’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지만 실상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인물로서 교씨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소설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작가 김만중은 <사씨남정기>에서 교씨를 통해 욕망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주어진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체제 안에서 새로운 제도를 꿈꾸는 점 등을 새롭게 발견해 낼 수도 있다.⁵⁾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고소설 속 선악의 인물들이 재평가되면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되고 있다.⁶⁾ 재생산된 콘텐츠를 접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과

3)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p.186.

4)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위의 책, pp.92~95.

5)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p.113.

6) 일례로, <사씨남정기>의 실존인물이라 평가되는 장희빈에 관련한 드라마의 경우 1960년대부터 9편에 걸쳐 다양한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왔다. 초기에는 장희빈을 역사적 사료에 따른 ‘희대의 요부’로 설정하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장희빈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2013년 4~6월에 방영된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경우, 기존의 장희빈과는 전혀 다른 인물상으로 재조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드라마 속에서의 장희빈은 후궁으로서 중전인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숙종을 현혹시켰던 요부가 아니다. 그녀는 숙종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자 그 사랑에 살고 그 때문에 죽게 된 정치적 희생양이었으며, 자신이 낳

거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은 ‘선인’과 ‘악인’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인물을 다각적으로 접하며 그 자체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과거에 악인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이 근자에 이르러 새로운 인식으로 재평가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라는 존재는 여전히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이며 전처의 자식을 지독히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철저히 ‘악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모가 전처 자식 생각하듯 한다.”, “어머니가 의붓어머니면 친아버지도 의붓아버지가 된다.”는 속담처럼, 계모는 전처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계모로 인해 혈연지간인 아버지와 전처 자식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계모형의 소설에서 계모는 천성이 간교한 ‘악인’으로 등장하며 전처 자식은 일방적으로 계략에 당하는 피해자로, 그러나 제대로 된 반항 한 번 못하는 순종적이고 효심 깊은 ‘선인’으로 등장한다.

이런 고정적인 선악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계모가 있는 상황이라면 의례히 이렇게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유없이 처음부터 착하거나 나쁜 사람은 없다.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선인이라고 해서 악인에 대해 전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작품 밖에서 보면 고소설 작자가 등장인물들의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선인과 악인의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게 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작자의 의도대로 처음부터 선인, 처음부터 악인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

작품 안에서 보면 등장인물들의 가정은 현실의 가정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혹은 어린 시절로부터의 경험과 그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소설 속의 가정문제도 마찬가지다.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영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 왕자를 중전에게 빼앗기게 되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려졌다.

2. 연구동향 및 연구방향

가정소설은 일반적으로 가정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람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소설은 우리어문학회의 『국문학개설』⁷⁾에 따르면 계모형, 쟁충형, 축출형으로 나누었으며, 정주동은 『고대소설론』⁸⁾에서 계모형, 쟁충형, 축출형, 특수형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초기에 고소설의 하위장르로 가정소설을 설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소설은 계모와 전처소생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주된 내용이라고 언급되거나 혹은 ‘계모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계모형의 소설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⁹⁾

계모형 가정소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모의 악행 원인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석사논문을 제외하고는 중점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주로 소설 속 갈등의 원인을 계모에게서만 찾거나 작품 밖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의견으로 파악된다.

김귀석은 계모형 가정소설에서 계모가 주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악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코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역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처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비록 그 삶이 유가사회에 배치되는 모순을 낳았지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¹⁰⁾

이원수는 조선시대 가정소설은 봉건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성원의 이질감에서 비롯된 가족 간의 개인갈등 중 애정, 신분, 주도권이라는 세 개의 기본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주도권 갈등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수직적 관계가 중심을 이뤄 계모와 전처 자식이 각각 가정 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본다.¹¹⁾ 전처 자식의 죽음으로 계모의 현실적 승리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그 승리가 원혼이라는 비현실적 방법에 의해 좌절되는 것은 전처 자식의 승리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는 작가의 의도적 처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복은 계모갈등이 대체로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주된 동기가 되어 발생한다고 보

7) 우리어문학회, 「소설」,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p.258.

8)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pp.295~309.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p.177~185.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pp.364~380.

박성의, 『한국고대소설론과 사』, 집문당, 1986, pp.360~377.

10) 김귀석, 「고소설에 등장한 계모 연구」, 『전통문화연구』 4,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6, pp.105~120.

11)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왔다.¹²⁾ 계모의 집안이 양반가이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후처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후처로 들어간 후에 전처 자식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점 등 주변 환경적인 원인들이 축적되어 갈등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욕망은 부차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전통적 연구를 통해서도 이성권¹³⁾, 정지영¹⁴⁾, 조현설¹⁵⁾, 한상현¹⁶⁾ 등 계모의 악행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 근래에는 시대적 흐름에 입각하여 교육적 입장이나 정신건강 연구적 입장에서 서은아¹⁷⁾, 이희¹⁸⁾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까지 고정된 선악의 이미지로 인식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유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작품 안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정 내부에서의 상호관계와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계모의 악행과 관련하여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 그 근본적 동인을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해 보고자 하는 두 작품 중 하나인 <장화홍련전>은 평안도 철산지방의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어진 작품으로, 계모가 전처 자식을 괴롭히다 못해 살해에 이르는 대표적 계모형 가정소설이다.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가정소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소설이면서 다른 계모형 가정소설에 비해 계모의 외형묘사가 독특하다는 점에

12)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pp.271~291.
 13) 이성권,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과 그 성격 - 계모형 가정소설과 가문소설 효열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pp.29~65.
 14) 정지영, 「장화홍련전 :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pp.422~441.
 15)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화사연구』 15-1, 민족문화사학회, 1999, pp.102~131.
 16)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99~237.
 17) 서은아, 「<장화홍련> 이야기의 문학치료적 효용」, 『문학치료연구』 7,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pp.91~115.
 _____, 「<장화홍련전>의 가족갈등과 문학치료적 활용」, 『국어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2009, pp.239~261.
 18) 이희, 「한국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의 정신분석적 주석」, 『정신건강연구』 9,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0, pp.58~67.

서 선정하였다.

<장화홍련전>은 현재까지 약 50여 종의 이본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이본들 중 구활자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이본에 비하여 계모의 묘사나 주인공의 재생 부분의 첨가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작품은 <김인향전>으로, <장화홍련전>의 아류작으로 평가될 만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사건전개나 계모의 악행의 원인 면에서 <김인향전>은 <장화홍련전>보다 고차원의 층위를 이루는 확연히 다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김인향전>은 현재 알려진 이본들이 본고의 논지를 진행하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임의로 활자본을 자료로 선정하였다.

여타 고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은 전통적인 ‘선인’과 ‘악인’이 매우 뚜렷이 구분된다. <장화홍련전>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선인’과 ‘악인’의 여성인물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선인’으로 장화와 홍련, 장화와 홍련의 친모인 부인 강씨를 들 수 있고, ‘악인’으로 계모 허씨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장인 좌수 배무용은 ‘중간자적 인물’이라 할 수 있고, 장화와 홍련의 죽음에 일조한 계모 허씨의 아들 장쇠는 ‘주도적이지 않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부사 정동호는 ‘정의로운 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남성등장인물은 소설 속 사건을 일으키는 보조적 역할은 하지만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장화홍련전>에서 장화와 홍련이 계모의 간계에 의해 살해당하고 후에 원혼이 되어 원정을 호소하며 계모를 벌주는 것이 주요 스토리라인으로 여성인물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김인향전>의 경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선인’은 인향 삼남매, 인향과 인함의 친모 부인 왕씨이며, ‘악인’은 계모 정씨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의 가장인 좌수 김석곡은 ‘중간자적 인물’, 부사 전두용은 ‘정의로운 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적인 인물로 결인 노파와 정씨의 심복 춘삼이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인향전>은 <장화홍련전>의 아류작으로 치부될 만큼 <장화홍련전>과 매우 비슷한 스토리로 진행되지만 <장화홍련전>보다 등장인물의 구성이나 사건의 개연성 등이 매우 잘 짜여져 발전된 형태의 소설로 보여진다. 하지만 역시 남성등장인물들은 사건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하며 여성인물들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다.

장화와 인향은 ‘악한’ 계모의 계략에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 작품 내에서 하나같이 아름답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장화의 경우 만이로서 홍련을 돌보는데 형제간 우애가 남다른 ‘선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인향의 경우 동기간

중 둘째이지만 결단력 약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오라비 인형보다 더 만형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며, 아우를 아끼는 마음은 장화에 못지않다. 계모가 직접적으로 계책을 세워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간계에 의해 언니가 죽게 됨을 알고 따라 자살하는 홍련과 인함 역시 효와 우애가 돋보이는 ‘선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자매들의 생모인 강씨와 왕씨는 작품전개상에서 갈등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등장인물들이다. 분석에 의미가 있을 만큼의 등장분량은 아니지만 죽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데다 ‘사별’로 인해 가장의 후취가 이루어지므로 후처에 대한 가장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어린 상황에서 원치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칠 수 있게 된다. 그런 유대감이 후처가 들어온 이후에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계모의 악행은 더욱 돋보이고 전처 자식들에게 측은지심이 들게 되며, 전처의 사망을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처는 유언으로 남겨진 가족들, 특히 자식들을 걱정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이자 ‘선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는 주 독자층이 부녀자라는 점에서 전처의 입장에 감정이입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런 모습들에서 독자들은 ‘선한’ 여성들의 가정은 지극히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계모 허씨와 정씨는 전처가 부재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에 끼어든 불청객이 된다. 특히 <장화홍련전>에서는 애초에 외모부터 추하기 그지없고 성품 또한 추한 여성으로 그려져 행복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악한’ 여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계모들이 본격적으로 간계를 행동에 옮기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재산이나 시기심 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계모들은 본래의 악한 성품 때문에 전처소생들을 꺾박하는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II장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고정적이었던 선악이미지를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묘사방법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계모가 속해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계모의 외형과 성격묘사, 그리고 계모가 속한 가족구성원 중 계모와 갈등을 빚게 되는 대상인 전처 자식들과 가장 등 가족구성원들의 묘사를 통하여 이들의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계모 허씨를, IV장에서는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계모 정씨를 재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던 두 작품 속에서, 층위를 이루는 어떠한 원인과 동기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모가 악한 성품의 인물로 그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당시 제도 문화적으로 존재한 가부장 중심의 축첩제도가 소설 상에도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될 만큼 현실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을 양산해냈다는 점이다. 양반 사대부로서 부인을 여럿 둘 수 있었고 이들 안에서 처와 첩으로 신분의 격차를 둬으로써 여성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소설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은 등장인물들에 감정이입한 나머지 착한 전처 자식들을 핍박하는 계모가 극악한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기저에 두고 작품상 가정 내에서 그들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심리작용에 따른 인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에서의 계모의 처벌과 관련하여 작품 속에서 계모를 처벌하는 관관의 처벌방법과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이들이 가진 지위를 살펴보고, 이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지위 이상의 역할기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Ⅱ. 고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 구성

1. 계모에 대한 이미지 구성

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미지는 단순하고 전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특히 계모가 등장하는 계모형 가정소설의 경우 계모는 악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권선징악의 내용적 특성을 보이는 고소설에서 계모는 악인의 형상을 하도록 이미지 구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미지 구성의 방법에 있어 외형묘사와 성격묘사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작품마다 다르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소설 속에서의 등장인물에 대한 외형 묘사는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편이다. 눈·코·입 등의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표현도 물론 존재하며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표현도 있기는 하다.¹⁹⁾ 하지만 그 범위를 여성 등장인물로 제한한다면 그 분석은 달라질 수 있다.

고소설 속 등장인물들 특히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경우 ‘재자가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외모가 가장 부각되어 왔다. 이는 가정소설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형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지만 성품에 따라 반영되는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작자의 주관적인 서술 때문으로 보이는데, 작자가 등장인물을 선인으로 설정할지 악인으로 설정할지를 인물묘사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소설에서 본치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더 나은 집안의 양반가에서 찾는다. 따라서 조신하고 단아한 외형과 행동거지를 기본으로 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눈과 눈썹·치아·손·허리·모발·음성·걸음걸이 등을 통해

19) 박갑수는 논문에서 고소설에서의 안면묘사는 종합적 표현이 압도적이며, 분석적 표현이 있으며, 가장 적게 쓰이는 것이 혼합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박갑수, 「고소설의 안면 묘사」,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1998, p.25.

묘사한다.

첩의 경우에는 기생이나 종처럼 처음부터 신분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규수보다 화려한 외형과 재주를 겸비한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도 선한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경우이고 악역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것은 일맥상통한 부분이며 역할에 따라 그 주관적인 표현이 달라질 뿐이다.

후취는 몰락한 양반가와 인연을 맺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라 후취의 지위 역시 전처보다는 낮으나 첩보다는 우위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후취의 경우가 계모형 소설에서의 계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설에서 ‘계모’는 주로 악역을 맡아 왔는데, 특유의 주관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간악한 외형으로 묘사된다.

그 용모를 말하진디 얼굴은 한 즈이 넘고, 두 눈은 통방울 꺾고, 코는 질병 꺾고, 입은 메역이 꺾고, 머리털은 뚝뚝 꺾고, 키는 장승 꺾고, 소리는 이리와 승냥이 소리 꺾고, 허리는 두어 아름 되는 중에 쏘흔 곰비팔에 수증다리에 쌍언청이를 다 꺾혔고, 그 주동아리가 길기는 칼노 썰 지경이면 열 스발이나 되깃고, 얼굴의 반반흐기는 식로 만든 명석 갖흐니, 그 형용은 참아 견디여 보기 어려운 중에20)

위 인용문은 <장화홍련전>에서 계모 허씨에 대해 외형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처럼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가정소설 중에서 계모에 대한 외형묘사가 가장 상세하면서도 유일하게 미인형이 아닌 외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계모형 소설에서 계모의 외형에 대한 묘사는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매우 막연하고 간단한 묘사만 되어 있을 뿐이다. 상세하게 추한 모습으로 묘사된 <장화홍련전>에서의 허씨와, 미녀는 아니지만 추녀도 아닌 것으로 묘사된 <콩쥐팍쥐전>에서의 배씨를 제외하고는 계모의 외모를 미인으로 표현하였지만, 미인이라고 표현된 작품에서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 ① ‘성은 정씨요 나히 십팔 세라. 인물은 절세미인나’ <김인향전>
- ② ‘..... 아리썩은 턱도와 고은 용피 스톱의 정신을 혼미케 하니 진짓 경국지식이라. 승상이 한번 보고 크게 침혹하여 세상 만스를 다 후리쳐 바리고 일시를 썩나지 아니흐

20) 본고에 인용된 고소설은 기본자료들을 포함하여 신혜진의 『조선후기 가정소설선』을 참조인용하였다. 특히 기본자료인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의 경우 인물들 간의 대화와 서술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조하였으며 각주에는 원전의 출처만을 밝힌다. 신혜진,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 <장화홍련전>,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 고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pp.107~108.

니.....' <양풍운전>

③ '강씨를 다려오니 얼굴은 비록 고으나' <어룡전>

④ '나희 십칠세라 용모화용이 세상에 썩어나고' <김취경전>

⑤ '..... 마침 근처 유씨가에 규수 있으되 색덕이 겸비하기로 유명하더라. 과연 인물이 절미하여 재질이 민첩하여 죽히 거가대족의 내주가 될 만한지라.', '..... 인물이 절미하고 지혜가 총민하므로 어려서부터 김씨와 더불어 정의가 규밀하더라.' <김씨열행록>21)

한편 <정을선전>에서의 노씨와 <황월선전>에서의 박씨에 대한 외모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²²⁾ 이는 계모형 가정소설이라는 특성상 본처나 첩의 경우와는 달리 외형이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형보다 상대적으로 성격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고소설에 등장하는 전처 자식들은 효를 다하는 착한 성품으로 등장한다. 반면에 이들과 갈등관계인 계모는 대체로 탐욕심과 시기심이 강한 악인으로 등장한다.

① '..... 그 마음 쓰는 법이 더욱 망측하여 리웃집 흠담하기, 일가간에 이간하기, 불 불 닳디 키질하기, 별별 남 못할 노릇을 츠즈가며 다하니 집안에 두기 일시라도 어려우나, 그것도 계집이라고 그달부터 티긔 잇서 연하여 으달 삼 형테를 나오미, 좌수 | 그로 말미암아 빅 가지 흥을 몰은 테하고 버려두는지라. <장화홍련전>

② '..... 성품이 간교하여, 노복들도 다 정씨에게 꾸지람을 들을가 하여 자연 조흔 일이 든지 조치 못한 일의 모다 정씨의 보비위를 하여 주도라. 겹호로는 인향 삼남매을 친자보다 더 귀출갓치 하나, 속으로는 늘 앙양시심이 썩나지 안이하더라. 누가 보든지 칭찬하나, 속중의 먹은 마음은 하날과 쌓이나 알느라. 독사 갓흔 정씨 악독한 마음 먹은 것슬 뉘 알리오.' <김인향전>

③ '송네 마음이 가장 방조하여 최씨를 초기갓치 보아, 제 도로혀 부인인 체하되, 최씨는 여상이 아는지라. 이러무로 송네 부인을 업시코져 하여, 일일은 간계를 너여 거긔 칭병하고 침석의 누어 고통하는 체하거늘', '.....놀느끼여 눈을 썩본즉 아모 것도 보지 아니하거늘, 이후로 신병이 되미 송네 더욱 밋디하며 이웃 주막 소년을 통간하니' <양풍운전>

④ '..... 번성이 강포하여 평성을 희코자 하는 슝이라. 학시 미양 월의 남미를 불상이

21) <김씨열행록>, 김기동·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5, 서문당, 1984. ; 활판본 <김씨열행록>

22) 김광순,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7,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pp.281~282.

여겨 비참하며 사랑하는 양을 보고, 강씨 너럼에 시기하여 은근히 희코즈 해야 학스 보는 뒤는 월의 남미를 불상히 여겨 사랑하는 체해야 음식을 조히 먹이며 각별 위로 하니 강씨 너럼에 교만해야 비복이라도 일정 엄하게 하니, 뉘 안니 두려워하리 요.’ <어룡전>²³⁾

위 인용문들에서처럼 계모형 가정소설에서 계모들은 외형보다는 간악한 성격에 대한 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관적이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귀석은 「고소설에 등장한 계모 연구」²⁴⁾에서 계모의 성격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선천적으로 본성이 간악한 성격을 소유한 계모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콩쥐팍쥐전>의 계모 배씨는 ‘천성이 요악간특하고’, <김인향전>의 정씨는 ‘성품이 간교하여’, <정을선전>의 노씨는 ‘로씨 본래 마음이 어질지 못하여 추년을 항상 해코자 하더라’, <어룡전>의 강씨는 ‘번성이 강포하여 평심을 희코즈하는 사름이라’, <장화홍련전>의 허씨는 ‘그 마음 쓰는 법이 더욱 망측하여’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황월선전>의 박씨와 <김취경전>의 안씨 등은 후처로 들어온 후 자식을 낳은 뒤 재산탐욕으로 포악해지는 경우 등을 후천적인 것으로 소개했다. 선천적인 본성이건 후천적인 성격이건 계모의 성격은 악한 성격으로 여겨왔고, 그 성격으로 인해 내부적 불협화음이나 외부적 현실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에는 전처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면서 소설 전체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 ①은 <장화홍련전>에 등장하는 계모 허씨의 성격이 묘사된 부분이다. 여타 고소설에 비하여 <장화홍련전>에서는 계모의 묘사가 상세한 편이다. 성격묘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계모의 성격은 ‘악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유치하고 짓궂은 장난처럼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양가집 규수들처럼 온후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성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화홍련전>에서의 성격묘사가 다소 과장되어 장황하게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계모형 소설에서의 계모의 성격묘사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악하다고 볼 수 있다.

23) ①~④ : 신해진, 앞의 책. ; ① <장화홍련전>,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 고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② <김인향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③ <양풍운전>, 김동욱 편, 『景印 고소설관각본전집』 2, 1973. ④ <어룡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76.

24) 김귀석, 앞의 논문, pp.109~110.

계모의 입장에서 후처로서 아무리 정실에 준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전처 자식이 생존해 있는 이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 지위의 안정일 수도 있고, 가장의 애정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나 적장자 계승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남편의 애정이 전처 자식에게만 쏠리는 것에 대한 치욕과 시기·질투심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계모로 들어온 이상 끈끈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기존의 가족 구성원에 편입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계모들은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2.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미지 구성

계모와 대립되는 가족구성원들의 경우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인의 형상을 하도록 이미지 구성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전처 자식들은 계모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해도 효를 다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렇다보니 전처 자식들은 외적인 면보다는 성품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전처 자식들의 외모가 묘사된 부분을 살펴보면,

- ① ‘그 용모의 아름다움과 기골의 순수함을 ……’, ‘장화 형제 점점 자라미 얼굴이 화려하고 신례 방정하야 스름마다 칭찬 안는 즈 | 업슬 썬더러 ……’, ‘…… 흘린 난 드 | 업는 일위 미인이 록의홍상으로 문을 열고 안연이 드러와 절하거늘 ……’ <장화홍련전>
- ② ‘……일남 이녀를 두어스되, 장녀의 명은 치욕이요 츠녀의 명은 치란이니, 나히 스오세 되미 용피 화려하고 지질이 초등하며, 아달의 명은 풍이요 즈는 운선이니, 용모 품질이 쏘흔 비범흔지라.’ <양풍운전>
- ③ ‘……늦게야 여식 하나을 나흐니 얼굴이 절묘하여 그림 갖튼지라. 크게 깃거하여 일흠을 월이라 하고……’, ‘…… 얼굴이 준수하고 기골이 장디하야 진실노 범상한 아히안니라.’ <어룡전>²⁵⁾

25) ①~③ : 신해진, 앞의 책.

이처럼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전처 자식들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편이며 있다하더라도 매우 적고 추상적인 묘사가 대부분이다. 언급되는 외모의 묘사는 김광순의 연구 논문에서 분류된 ‘요조숙녀’의 외형묘사²⁶⁾와 흡사하며 평이하다. 요조숙녀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이며 절개가 굳고 효심이 지극하고 재능이 다양하면서 신분상으로도 명문가 출신이다. 비록 전처 자식의 외형 묘사는 매우 적고 추상적이지만 조선조 여인상 중에 가장 합당한 형태는 요조숙녀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요조숙녀형이라고 하기에는 전처 자식들에게는 특별히 특징지을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착하고 효성깊은 성품’이다.

다음으로 전처 자식들의 성품이 묘사된 부분을 살펴보면,

- ① ‘..... 범벅이 령리하고 쏘흔 부모를 더욱 공경함으로 좌수 부부 더욱 익증이 녀임이 비길 터 업더라.’ <장화홍련전>
- ② ‘장녀 인향이 본대 효순하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남매간에 우애 극진하여, 일가 척이며 동리 사람이 뉘 안이 칭찬하며 뉘 안이 탄복하리오.’, ‘..... 김좌수 덕에 규수 인향이 재조 겸비하고 인후하단 말을 듯고’ <김인향전>²⁷⁾

이렇듯 외형묘사보다는 성품묘사에 비중을 두어 표현하였다. 외형묘사에 비해 구체적이고,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품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이는 계모의 악독한 성품과 대비되어 계모의 악행을 더욱 강조하고 전처 자식들의 비극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로 볼 수 있다.

- ① ‘..... 문득 한 선관이 하늘노 조츠 내려와 쏙 한 송이를 주거날, 부인이 바드려 홀즈음에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쏙치 변하야 아름다운 선녀가 되야 부인의 품속으로 들거늘, 놀나 췌다르니 남가일몽이라.’, ‘..... 문득 방안에 향취 진동하며 한낫 아희를 나오니’ <장화홍련전>
- ② ‘..... 비몽사몽간에 하날노셔 청의동지 운무에 싸여 내려와 절하고 엇조오되, “소동은 동희 룡조로서 옥황계 득죄하야 하계에 낙치시미 갈 바를 아지 못흐옵드니, 금불옵 부테 지시흐시기로 왔스오니 어엽비 여기소서.”하고, 품안으로 드느니라. 일일

26) 김광순은 논문에서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여인상’을 요조숙녀형, 기녀형, 계모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김광순,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7,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pp.261~294.

27) ①~② : 신해진, 앞의 책.

은 집안에 오운이 즈옥흐며 향취 진동흐드니, 부인이 마참 기운이 불평흐야 침석에 비겨누어논디, 흐날노셔 일위 선네 나려와 침방으로 드러오드니’, ‘..... 일일은 집안에 오운이 즈옥흐며 향취 진동흐드니, 부인이 마참 기운이 불평흐야 침석에 비겨누어논디, 흐날노셔 일위 선네 나려와 침방으로 드러오드니, 이윽흐야 희복흐미 활달한 기남지라. 선네 옥병에 향은슈을 기우려 아히를 씻겨 누이고 가로디, “이 아히는 동희 룡자로서 연분이 잇셔 츠자왓스오나, 부인의 여익이 미진흐여 불구에 이별을 당홀 거시니 각별 조심흐소서.”호고, 오운에 싸이여 간 디 업는지라.’ <어룡전>28)

이러한 작자의 의도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전처 자식들의 태몽과 탄생 시의 기이한 현상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 태몽이라든지 기이한 현상들은 계모형 가정소설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처 자식들의 선한 성품이 필연적인 것이며 악한 계모를 만나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장면들은 작자가 전처 자식들의 고결성을 더욱 강하게 노출시키고 그와 더불어 이들의 비극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계모의 남편이자 집안의 가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계모형 가정소설이나 계모가 등장하는 설화 속에서 가부장의 모습은 거의 묘사되지 않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형이나 성품 묘사라기보다는 이름과 벼슬 등의 사회적 위치가 언급되는 정도이다.

- ① ‘지금으로부터 삼백여 년 전에 평안도 털산 싸에 한 스톱이 잇스니, 성은 비요 일흠은 무용이라. 본디 그곳 원향거족으로 그 고을 좌슈를 지닌고로 하향 풍속으로 비좌슈라 일컫더라.’ <장화홍련전>
- ② ‘도선 태종황제 즉위 초에 국태민안하고 시화년풍이라. 그새에 김석곡은 그 고을 좌수로 관부의 출입하고,’ <김인향전>
- ③ ‘성은 양이요 명은 툇익이니, 스톱되오미 운순공검흐나, 마음이 나약흐여 일을 당히 툇 결단이 업는지라.’, ‘승상이 한번 보고 크게 침혹흐여 세상 만스를 다 후리쳐 바리고 일시를 썬나지 아니흐니.....’ <양풍운전>
- ④ ‘송나라 시절에 기쥬 싸에 일위 명환이 잇스되, 성은 어요 명은 이관이라. 성품이 강유를 겸흐고 변화세상에 썬이 업셔 소상강 동정 어구 죽임도원이라 흐는 곳에 툇지를 정흐고 농업을 힘쓰니, 가산이 요부흐여 그일 거시 업셔 쥬야로 시셔빅가를 공부흐고

28) ①~② : 신해진, 앞의 책.

음풍영월노 세월을 보느냐’ <어룡전>

- ⑤ ‘조선 관동 땅에 일위 현사가 있으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계현이니라. 세대로 관록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세가 일향에 거부이더라. 계현의 기골이 현양하며 면목이 활달하더니, 점점 자라 장성하매 총명 영리하며 혼후진중하여 부모의 마음을 족히 위로할러라. 칠팔세에 학업을 시작하매 문일지십하여 식견이 일취월장하니, 연기 성동에 문장이 숙성이라.’ <김씨열행록>²⁹⁾

위 인용문에서처럼 가장의 직접적인 묘사는 대외적인 모습만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가장이 전처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들과 후처에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비해 전처 자식들과 후처의 극과 극으로 갈리는 선악이 크게 강조되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주로 후처인 계모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장화홍련전>에서의 배좌수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의 옹호 또는 ‘남성지배를 위한 신화적 텍스트’ 등으로 파악하는 의견이 있다.³⁰⁾ 가부장제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조선 후기에 그 책임을 계모에게 전가시켜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가정 내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가장이지만 후처의 악행 뒤에 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난, <장화홍련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모형 소설 속의 가장의 모습에서 대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처럼 보인다.

계모형 소설 속에서 가장들은 대부분 우유부단하지만 선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가장의 이미지는 후처의 악행에 묻혀 피해자행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관의 조사와 추궁에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면 간계에 속았음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자들에게서도 용서를 받게 된다.

29) ①~④ : 신해진, 앞의 책.

⑤ : 김기동·전규태 편, 앞의 책.

30) 조현설은 논문에서 <장화홍련전>이 조선 후기 가부장제의 경직화와 경직화에서 벗어난 위기의 책임을 오로지 계모의 ‘본성’에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조현설, 앞의 논문, p.107.

Ⅲ. <장화홍련전>에서 계모의 재해석

1. 외모로 인한 낙인

<장화홍련전>에서의 계모 허씨는 계모형 고전소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악인’으로 판단되어온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계모의 외형에서 유일하게 미인형이 아닌 외형을 지녔다.

그 용모를 말하진디 얼굴은 한 즈이 넘고, 두 눈은 통방울 꺾고, 코는 질병 꺾고, 입은 메역이 꺾고, 머리털은 뚝뚝털 꺾고, 키는 장승 꺾고, 소리는 이리와 승냥이 소리 꺾고, 허리는 두어 아름 되는 중에 쏘흔 곰비팔에 수줍다리에 쌍언청이를 다 곁혔고, 그 주둥아리가 길기는 칼노 썰 지경이면 열 스발이나 되깃고, 얼굴의 반반헝기는 식로 만든 명석 갓흐니, 그 형용은 참아 견디여 보기 어려운 중에 그 마음 쓰는 법이 더욱 망측하야 리웃집 흠담헝기, 일가간에 이간헝기, 불 붓는디 키질헝기, 별별 남 못홀 노릇을 츠즈가며 다흐니 집안에 두기 일시라도 어려우나, 그것도 계집이라고 그달부터 툇고 잇서 연하야 으달 삼 형테를 나오미, 좌수 | 그로 말미암아 빅 가지 흥을 물은 테호고 버려두는지라.³¹⁾

이는 소설 속에서 묘사된 허씨의 외양으로, 외모 자체를 흉측하게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용모는 곧 심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의도적 묘사이다. 허씨가 배좌수와 혼인하게 된 것이 나이 이십인데 이때는 재가가 아닌 이상 초혼으로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양반의 이혼은 왕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여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혼이 성립될 수 없었고, 아무리 일찍 남편을 잃은 여자라도 재가는 생각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³²⁾ 허씨는 재가가 아닌 초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혼이라고 불

31) <장화홍련전>, pp.107~108.

32) 김귀석, 앞의 논문, p.106.

때, 이토록 늦은 나이에 혼인했다는 사실은 가문의 재정상태, 당사자의 외적·내적 결함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작품의 말미에 허씨가 고백하는 장면에서 가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잠시 언급되기는 한다. 하지만 언급되는 내용이 매우 짧고 작품의 초반에 허씨의 외양묘사를 보고 이미지가 형성되는데다 이는 허씨의 악행에 독자들은 늦은 혼인이 허씨의 외양과 악한 성품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허씨가 혼인한 나이 이십은 이미 성격이 형성될 시기로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로 괴팍한 심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모가 반듯하지 못하면 속도 같다고 생각하게 하여, 허씨를 대하는 주변인들은 이미 마음도 반듯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를 범죄심리학에서는 ‘낙인이론(烙印理論, labeling theory)’이라고 한다.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관한 이론이며, 1960년대에 하워드 S. 베커(Howard S. Becker)에 의해 제창된 것이다. 일탈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 주위로부터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허씨는 이런 ‘낙인효과(labeling effect)’로 인해 추한 외모로 인한 인식 때문에 부도덕한 인물로 평판이 나게 되었고, 후처로 들고 나서는 당연히 전처 자식들을 구박하다 못해 죽게 만드는 ‘악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식들은 전처의 혼적만을 좇고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며 남편마저 재물을 이유로 장화 자매를 아끼라고 책망만 하고 있다. 허씨를 후처로 들었을 때에도 좌수는 허씨의 평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후처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얻은 후처이다. 그러므로 좌수에게도 허씨에 대한 낙인효과는 적용될 수 있다. 재물을 탐내 장화 자매를 박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허씨에게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재산상속만을 생각하더라도 전처 자식인 장화 자매는 여아이며 허씨가 낳은 세 남자 아이들이 재산상속에 상대적 우위에 있었기에 허씨의 입장으로선 그저 장화 자매를 무사히 혼례시켜 내보내면 되는 일이므로 더 큰 욕심을 낼 이유가 없었다. 외모로 인해 부당한 처사를 받아왔던 허씨로서는 장화 가족에 인정되지 않음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화살이 열등감의 원인인 장화 자매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허씨의 악한 행동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존감을 보호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자기 방어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계모의 모습은 천성적으로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장화·홍련,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김인향전>의 인향·인함은 모두 성품이 예의 바르고 효

도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계모와 전처 자식들에 대한 개개인의 묘사는 공통적으로 성질이 천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천성적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대조적이다. 천성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개념이다. 변화 가능성이 고려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야 가능할 만큼 힘겨운 일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으로 언급되는 <섭한(葉限)> 이야기를 예로 들면,

계모와 친딸은 그 자리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돌 무덤을 만들어 이들을 묻고 ‘오녀총(懊女塚)’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자들이 소원을 빌면 필시 영험이 있었다.³³⁾

전처 자식을 학대한다는 점에서 <장화홍련전>의 계모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후모와 딸은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그 둘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흉측한 외모의 계모가 가족 구성원이 되고 전처 자식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살해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모든 전말이 발각되면서 처형된다. 심우장은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죽음의 제의적 해석」에서 이를 불쌍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구조를 통해 ‘희생양 메커니즘’의 구조로 보았다.³⁴⁾ 계모를 ‘희생양’으로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인효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외모에 의해, 그리고 계모라는 위치로 인해 고정관념이 생겼고, 그로 인해 계모가 목표물이 되어 ‘악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선입견에서 더 나아가 허씨의 경우에는 측은하게 여김도 없이 일관된 낙인을 가지고 처형당하는 결말을 맞게 되었고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계도 악인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33) 단성식, 『역주 유양잡조』 2, 정환국 역, 소명출판, 2011, pp.14~15. ; 『西陽雜俎』續集第一. “其母及女即爲飛石擊死. 洞人哀之, 埋於石坑 名曰 懊女塚. 洞人以爲禱祀, 求女必應.”

34) 심우장,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죽음의 제의적 해석」,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p.311.

2. 외부인으로서의 소외

장화와 홍련은 자녀가 없던 배좌수 부부에게서 태어나 금지옥엽 자라나 어린시절 친모가 사망한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떠났을 때 ‘장화 형제 | 그 모친의 신체를 붓들고 벽용이통하는 형상은 비록 철석간장이라도 슬허히 안일자 업’을만큼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배좌수는 계속 슬퍼만 하는 장화와 홍련을 위한다는 이유와 후사를 이을 목적으로 계모 허씨를 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새어머니가 생겼음에도 친모만을 생각하며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며 허씨와의 모녀관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배좌수 역시 장화 자매와 허씨와의 친밀감 형성에 전혀 일조하지 않고 오히려 자매를 불쌍히 여겨 같이 울기만 하였다. 장화 홍련 자매는 의존적·감정적·정직·순진·약한 자아의 특성을 가진 전형적인 미숙·유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매의 이런 형태는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의 유형 중 ‘양가적(ambivalent)’ 유형의 성격을 보여준다. ‘양가적’ 유형의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어머니가 떠나면 매우 혼란해한다.

최초 애착이론가 존 보울비(John Bowlby)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매달림과 따라다님이 중요한 생물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은 정서적 결속이며 그런 결속에 대한 욕구는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애착의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은 어머니가 떠났을 때의 정상적인 슬픔과 그녀가 돌아왔을 때의 행복한 열정으로 나타난다. ‘불안정 애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회피(avoidant)’ 유형의 아이는 어머니가 떠났을 때는 조용히 있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양가적’ 유형이 앞서 말한 장화 자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양가 애착의 아동은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뿌루통하다. 이런 아동기의 애착 행동은 훗날 저항→절망→이탈로 이어져 성인에까지 전달되어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³⁵⁾

장화의 이런 ‘양가적’ 유형의 애착 성격은 자신에게 온 사랑을 베풀던 어머니라는 대상이 상실되자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구성원인 허씨를 완벽히 배제한 채 원구성원, 특히 동기간인 홍련에로의 집착으로 이어졌다.

35) P. Fonagy,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반건호 역, 도서출판 빈센트, 2005, pp.21~39.

“부친의 의향을 알지 못하거니와 무삼 연고인지 ‘이 김흔 밤에 썬나 외가에 단여오라’ 하시니 마지 못하야 가거니와, 이 길이 필경 흥흥 일은 잇슬지언딩 길흔 일은 업슬지라. 지족이 급급하야 스정을 다 못하고 가거니와, 가장 망극흔 것은 다만 우리 형데 | 모친도 업시 서로 의지하야 일각도 썬나미 업시 지나더니, 천만 뜻맞게 일을 당하야 너를 적적흔 빈방에 혼즈 두고 가는 일을 싱각하니, 가삼이 터지고 간장이 녹는 심스는 동희를 다하야 먹을 갈아도 다 괴롭지 못홀지라. 아모지나 잘 잇거라! 너 이 길이 도치 못홀 뜻하나, 그러나 만일 무스하면 슈히 도라올 것이니, 그 동안 그리운 싱각이 잇거든 서로 보게 의복이나 밧구어 넘자.”³⁶⁾

위 인용문처럼 비록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외삼촌댁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동생에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는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다. 아무리 바깥출입하기 어려운 양반댁 규수라고는 하지만 외갓집에 가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장화 자매는 사별을 목전에 둔 것처럼 비통해 하고 있다. 이들의 슬픔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넘어선 애착과 집착의 표현이다. 계모가 들기 전의 원 가족 구성원에서 아버지는 이미 계모의 간계에 넘어가 자신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여기고 있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동기간인 자매뿐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다가 이 말 속에는 계모를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계모를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어머니로 생각했다면 ‘우리 형데 | 모친도 업시 서로 의지하야 일각도 썬나미 업시 지나더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계모가 들어와 아들 셋을 낳을 기간동안 장화 자매는 허씨를 철저히 외부인으로 취급하였고 소외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칭에 악인을 맞나 이 디경에 일으렀는가? 우리 모친은 엇지하야 이 세상을 버리시고, 이 잔인한 인성을 낫혔다가 간악흔 스텝의 모희를 입어 등잔불에 나뉘 갖치 속절업시 죽게 하시뇨?”³⁷⁾

“.....삼 년이 지난 후에 계모를 엇으미 그 성품이 불측하야 박디가 날노 자심흔지라. 설은 간장과 슬픈 마암을 일의지 못하야 엇지홀 줄 몰으나, 다만 낮이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모친을 싱각하며 형 서로 의지하야 장장 하일과 긴긴 추야를 장우다탄으로 지넉 업더니, 궁흉극악흔 계교의 독슈를 버셔나지 못하야 오날날 이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36) <장화홍련전>, pp.113~114.

37) <장화홍련전>, p.117.

장화의 천만익미혼 사정을 턴디 일월성신은 질명호소서.”³⁸⁾

위 인용문에서처럼 장화는 계모와 친모를 달리 구분하여 인식하고 ‘간악혼 슝’, ‘성품이 불측호야’, ‘궁흉극악혼 계교의 독슈’라고 표현하고 있다. 처음부터 장화는 허씨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고 계모라는 선입견으로 온전히 외부인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네 아모리 부모의 명령이라 홀지느 내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빈난 비록 나오나 텃룬의 지극히 갓가온 동괴일신이라. 전일 우리가 우익호던 정의를 심각호면 설혹 부모의 명령이 지엄호더티도 ‘나를 물에 너엇다’ 호고 부모의 회심호시기를 주션호는 것이 정의라 홀 터인디, 네가 그럿케 혼다 홀지라도 살기를 도모홀 바 업거니와, 시금 아췌 황턴으로 도라가는 인싱으로 호야곰 이다지 강박홀 것이 무엇이나? 다만 나의 소원은 죽지 안코져 흠이 아니라 잠간 동안 말뫼를 주면, 삼촌집에 가서 도라가신 모친의 스당에 하직이느 고후고 외로운 흥년의 신세를 부탁호야 아모조록 느와 갓흔 비명을 면케 호고져 호미오. 결단코 내 목숨을 보전코져 흠은 아니라. 발명호즉 계모의 식기가 잇슬 것이오, 살고져호즉 부친의 명을 거역흠이니 일장 명령디로 호려니와, 아모조록 잠근 말뫼 주어 느의 죽은 고후이라도 원흔이 업게 하라.”³⁹⁾

이는 배다른 동생 장쇠에 이끌려 자신이 죽게 될 듯 앞에서 장화가 하는 말이다. 죽기를 거부하는 것도 누명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친모의 사당에 하직을 고후고 외가에 동생을 부탁한 다음에 죽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탁은 인간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며, 설사 누명이 아닌 실제 죄를 지었더라도 죽음은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장화는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흥련만을 걱정하는 모습은 장화의 양가 애착 대상이 흥련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흥련이 장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조를 따라서 장화가 죽은 못에 찾아가는 장면에서도 엿보인다.

홀연 청도ㅣ 놀아와 잉도나무에 안지며 흥년을 보고 반가와 호는 듯 지저귀는지라. 흥년이 널오디, “네 비록 김싱이나 우리 형님 잇는 곳을 가라쳐 주러 왔느냐?”호디, 그 청도 알아 듯는 듯호고 그럿타는 듯호거늘, 흥년이 갈오디, “과연 그러호냐? 네 느를 갈

38) <장화흥련전>, p.119.

39) <장화흥련전>, p.118.

으쳐 인도하러 왔거든 네가 먼저 압서서 날아가면, 넌 너를 짜라 가리라.”흔디, 청도 |
연하야 고기를 조으며 응호는 듯호는지라. ……청도 | 물가에 다다라는 쥬더호고 가지
안커늘……40)

위에서처럼 청조는 흥련을 장화가 죽은 못으로 데려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단순히 ‘새’라고만 하기에는 정황상 장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볼 수밖에 없다. 흥련이 못에 도착하자마자 장화의 혼백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까지는 고소설에서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이다. 장화는 흥련에게 “네 소원 그러홀진디, 이 물노 썬여 들어오라.”라고 하며 자살을 권한다. 죽기직전까지 걱정하던 동생이 죽겠다고 찾아오니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이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으로 비춰진다. 이렇듯 장화 자매는 두 사람만의 세계에 머무는 병리적인 모습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계모를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장화 자매의 부친 배좌수의 경우는 어떠한가. 배좌수는 <장화흥련전>에서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계모의 간계에 속아 장화 자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히 사건에 원인제공을 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도 않고 장화를 죽음으로 내모는 연유도 계모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많은 독자들은 그를 우유부단한 인물 정도로 평가하지 악인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으며 도리어 향족 윤광호의 여식을 삼취한다.

계모와 전처 자식들의 갈등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의 태도이다. 가장은 갈등의 주체는 아니지만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모와의 갈등이 단순히 계모와 전처 자식의 선악 대결이 아니라 가장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관여하는 가족갈등인 이상 가장의 태도를 검토하는 것은 계모갈등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계모형 가정소설에서의 가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좌수의 경우 전처 자식만을 아끼고 후처인 허씨를 홀대하며 오히려 시기지심이 생기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허씨의 간계에 넘어가 직접 전처 자식들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허씨가 처형당하고 난 후에 배좌수는 가정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삼취까지 한

40) <장화흥련전>, pp.125~126.

다. 배좌수는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에도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다.⁴¹⁾

좌수는 그 식기하는 마음을 짐작하고 허씨를 불너 크게 책해야 왈, “우리가 본디 빈곤하게 지내다가, 전처가 친경 직물을 만이 어터온고로 지금 우리가 풍비이 쓰는 것이 다 그 덕이오, 지금 그딤의 먹는 것이 다 그 밥이라.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크게 감동할지 어늘, 더 너으들을 심히 박디하니 엇지 도리라 하리오? 츠후는 그리 말고 아모조록 사랑해야 그딤가 나흔 즈식이나 조금도 츠등이 업게 하라.”⁴²⁾

이는 허씨가 장화 자매를 해할 꾀를 생각하는 것을 짐작하여 경고하는 장면이다. 이 언행으로 인해 허씨는 더욱 시기지심이 일어 장화 자매를 죽일 뜻을 품고 밤낮으로 교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너의가 이럿듯 장성하얏스니, 너의 모친이 살아더면 오작 깃버하깃느냐만은, 명도 귀구해야 사오논은 사름을 맞는 박디 텃심하니, 너의가 슬퍼함을 보면 내 마암이 쏘흔 견디기 아려우니 아모조록 안심해야 지ნი되, 만일 다시 학디하는 일이 잇스면 내 맛당이 처치해야 너의 마음을 편케 하리라.”⁴³⁾

위 인용문은 허씨가 배좌수의 경고를 듣고 장화 자매를 죽일 뜻을 품으며 교계를 생각하게 된 후에 장화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며 위로하며 하는 말이다. 허씨가 없는 자리에서 기존 가족구성원들이 모여 눈물 흘리면서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고 계모의 흉을 보고 있는 것이다. 허씨가 이를 몰랐다면 장화를 죽일 생각을 했을지언정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허씨는 이 때 창틈으로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혼인과 후사 출산으로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믿었던 남편마저 전처 자식들과 함께 죽은 부인만 그리며 자신의 흉을 보고 처치하겠다는 말을 듣는 허씨의 심정은 극한의 소외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다. 노력했으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자존감도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좌수는 계모를 자극하여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후에

41) 이승복, 앞의 논문, pp.284~285.

42) <장화홍련전>, p.108.

43) <장화홍련전>, p.109.

부사에게 허씨가 죄를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밝혀지지만 허씨는 양반가의 자손이었지만 점차 문호가 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차에 나이 이십이 지나서 후처로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열등감이 허씨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갈등의 중요한 동기라고 주장⁴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허씨가 경제적 욕망을 가졌을지언정 전처 자식 중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들 셋을 낳아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어느정도 확보되었다. 장화자매는 시집을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녀아 형제의 장리를 위하여 불상하고 가엾기 측량 업나니, 바라건디 이 가는 사람의 유언을 저바리지 말으시고 두 아히를 아못조록 어엿비 녀여 잘 길너 갓흔 가문에 출가하야 봉황의 쌍이 화합하는 즈미를 보게 하시면, 비록 죽어 명명흔 가운디셔라도 깃거셔 그 은덕을 갑흐리다.”⁴⁵⁾

만약 이러한 전처의 유언에 따라 장화와 흥련을 시집보내 출가시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배좌수는 계모가 장화자매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가시키지 않았다. 죽은 흥련은 부사에게 원정하는 장면에서, “.....소녀의 아비 소녀 형대를 인지중지하야 남의 업는 바로 아옵고, 장춘 어진 비필을 구하야 원앙이 록슈의 노는 자미를 보려 호오미, 계모의 식기흠을 인하야 장춘 이십이 되도록 혼언을 덩치 못하게 호오니.....”라고 말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더구나 애지중지하던 딸의 목숨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진 가장이 계모 때문에 이십이 넘도록 딸을 출가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⁴⁶⁾

“소첩이 디디 명문거족의 즈손으로 문호 점점 쇠잔하야 도불려석호옵던 차에, 좌슈의 정혼흠을 인하야 그 후쳐되모딴 던실 쏘 형테 | 심히 아릅답기로 친즈식 갓치 양육호옵더니, 나이 점점 만아 이십이 되오미, 점점 흥동이 불측호와 빅 말에 혼 마디도 듯지 안코 말할 수 업는 일이 만스와 원망과 비방이 적지 안삽기로, 썩썩 저를 경계하고 효유

44) 이승복은 “배좌수가 허씨를 재취한 것은 집안의 후사를 걱정했기 때문인데 허씨는 아들 삼형제를 연달아 낳았다. 이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한 허씨로서는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 대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할 욕망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승복, 앞의 논문, p.275.

45) <장화흥련전>, p.107.

46) 서은아, 「<장화흥련전>의 가족갈등과 문학치료적 활용」, 『국어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2009, p.244.

해야 아모조록 사름이 되게 하고저 하옵더니, 일일은 녀의 형제의 비밀히 말하는 것을 우연이 엿들사온즉 극히 흥쾌하온지라. 마암에 가장 놀납고 분하고 가장에게 말하게 되면 반다시 모히하는 줄노 알고 듯지 안을가 넘어야, 다시 가장을 속혀 장화를 죽일 생각이 나서 쥐를 잡아 피를 못쳐 장화의 자는 이불 속에 넣고 낙티흔 양으로 하고, 소녀의 자식 장쇠에게 계교를 갈아쳐 장화를 속혀 다리고 가다가 물에 너어 죽이오미, 그 아우 흥년이 엿지야 그 일을 알고 쏘흔 화를 당할가 두려워 승야도쥬하얏사오니 법도로 처치하시려니와, 소녀의 아달 장쇠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임의 가진 병신이 되얏스오니 죄를 사하야 주소셔.”⁴⁷⁾

이는 계모 허씨가 부사의 취조에 겁내며 장화를 죽이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는 장면이다. 이미 사건의 전말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허씨가 거짓을 고할 수는 없다. 허씨는 배좌수가 전처 자식들과 함께 죽은 부인을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에 시기지심이 발동하여 장화와 흥련을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허씨는 어머니로서 전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커갈수록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원망을 할 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할 생각도 했지만 모해한다고 할까봐서 하지 못했고, 결국 장화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배좌수는 허씨가 재산을 탐내 장화 자매를 해할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다. 이는 앞서 말한 배좌수의 언행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적 억울함과 원망 때문에 허씨는 자신을 어머니로 대해주지 않는 전처 자식들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화와 흥련은 허씨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애지중지하는 것과 재물에 대한 시기지심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해한다. 즉, 장화와 흥련은 갈등의 원인이 계모의 성격적 기질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계모의 입장에서는 허씨가 말하듯이 자식과 의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자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으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갈등이 생긴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갈등의 원인은 전처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허씨는 후사를 잇게 하기위해 얻은 후처로서 아들 셋을 낳아 소임을 다하였고 전처

47) <장화흥련전>, pp.136~137.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려고 했다. 하지만 배좌수를 비롯한 장화 자매는 허씨를 철저히 소외시켰다. 배좌수는 처음부터 후사생산을 목적으로 혼처를 구했지만 구할 수 없었고 부득이 ‘외적·내적 결합이 많아 보이는’ 허씨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허씨는 남편에게 이미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화 자매 역시 허씨를 소외시켰다. 친모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애정과 측은지심이 장화 자매에게 쏠려 있었으나 후사를 잇기 위해 들어온 ‘외부인’인 계모 허씨가 후사를 잇게 되자 아버지의 애정을 허씨와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친모를 잃은 장화 자매에게 있어 아버지로부터 배신과 질투를 느끼게 되었고 계모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가문을 이을 아들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장화 자매는 더욱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처 자식과 계모가 바라보는 갈등의 원인은 서로의 시각이 다르다. 전처 자식들은 계모의 성격적 기질을 문제시하고, 계모들은 자식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계모와 전처 자식들은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 인물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른’ 존재일 뿐이다. 전처 자식과 계모는 처음부터 근원이 다른 두 개체이다.

계모와 전처 자식은 처음부터 그 근원이 다르다. 전처 자식의 입장에서 가정은 혈연에 의해 이루어진 필연적 관계의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계모는 필연적 공간에 끼어드는 우연적 존재인 것이다. 필연적 존재로 이루어진 존재들은 애정이라는 고리로도 얽혀 있다. 이 가정을 더욱 돈독하게 묶어주는 것은 애정인 것이다. 기존 구성원 사이에서 넘치도록 흐르는 애정이 계모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된다. 그 벽을 넘기 위해 계모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계모의 행동은 언뜻 보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래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계모는 행동의 주체 자라기 보다는 탐색의 대상인 셈이다. 인정받기 위해 역할 기대에 몸부림치며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⁴⁸⁾

계모는 필연적 존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애정으로 표상되는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개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합한 어머니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계모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48)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유형과 악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5,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pp.103~110.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 악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계모가 저지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악행이 되는 것이다.

IV. <김인향전>에서 계모의 재해석

1. 경쟁에서의 패배

소설 속에서 인향은 효순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며 남매간에 우애가 극진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장남인 오라비 인형보다 두 살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똑 부러져 부모 역시 인향이 맏이인 것처럼 대하며, 친모 왕씨 부인도 죽기 전 유언으로 인향에게 남은 가족들을 부탁하기도 한다.

장녀 인향이 본대 효순하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남매간에 우애 극진하여, 일가 척이며 동리 사람이 뉘 안이 칭찬하며 뉘 안이 탄복하리오. 되수 부부 사랑함을 장중보 옥갓치 녀이러라. 좌수 일너 갈오되, “충신은 임군 성기기를 수화라도 사양치 안이하고, 효자는 부모의 령을 어기지 안이한다하니, 너도 충효우애를 극진히 하라.” 또 인향의 손을 잡고 갈오대, “너의 부친다려도 부탁하였거니와, 부대 나 죽은 후라도 효성을 지극히 하여, 혹 계모를 엇들래도 친모와 갓치 효도하고 어린 동생들도 다 우애 잇게 지내라.”⁴⁹⁾

이처럼 좌수 부부는 인향에게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모의 행동으로 어머니가 죽고 난 후의 인향은 ‘어머니의 대리인’이 되어야 했고 인향도 그를 당연시 여겼다. 하지만 가정경제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적적함까지 어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인향은 좌수에게 자신있게 후취를 구하라고 할 수 있었다.

① “첩이 괴질이 허약하고 원귀 정일치 못하여 상공으로 더부러 동쥬 슈십 년의 일점 혈육이 업스니, ‘불효삼천의 무후위티라’ 호오니 첩의 무즈흔 죄 존문의 용납지 못홀

49) <김인향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pp.23~24.

거시오나, 상공의 광홍홍신 덕을 입스와 지우금 부지호오나, 싱각건티 상공이 누티 독신으로 류씨 종스의 위티호미 급호운지라. 상공은 첩을 기렴치 마르시고 어진 가인을 취하여 농장지경을 보시면, 문호의 경식 적지 아니하고 첩이 또한 죄를 면할가 호는이다.” <사씨남정기>⁵⁰⁾

② “첩은 임의 싱산을 바라지 못호느니 타문에 숙녀를 취호야 남녀간 스속을 보소서.” <옥난빙>⁵¹⁾

처첩형 가정소설에 해당하는 <사씨남정기>와 <옥난빙>을 살펴보면 후사를 얻기 위해 첩을 얻으라는 권고를 본처가 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에게 새로운 여자를 얻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그의 정실부인이어야만 정황상 매끄러운 진행이 된다. 하지만 <김인향전>에서는 딸인 인향이 아버지에게 새 부인을 얻을 것을 권하고 있으니 인향은 집안에서 정서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향은 자신이 가정의 실세로서 가장다음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후취하여 어머니가 된 정씨가 본인과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으며, 절세미인형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갖게 된다. 어린 나이에 후취가 된 정씨 역시 다 큰 전처 자식들 그것도 대를 이을 장남까지 존재하는 집안에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던 인향을 보며 충분히 불편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다. 이로써 한 남성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집안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인향과 계모 정씨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

인향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남근기⁵²⁾ 동안에 나타나지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남는다. 융(Carl Gustav Jung)은 여아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불렀지만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이 용어는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과 부모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보편적 용어로 자리잡았다. 임상에서는 ‘오이디푸스적 승리’와 ‘오이디푸스적 상황’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오이디푸스적 승리는 아동이 반대 성의 부모로부터 많은 사

50) 신해진, 앞의 책, p.21.

51) 신해진, 앞의 책, p.109.

52) 프로이트는 발달단계를 정신성적 발달단계로서 구강기(출생~1세 반)-항문기(1세 반~3세)-남근기(3~6세)-잠복기(7~12세)-성기기(13세 이후-)의 5단계로 보았다.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나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각 단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과잉만족되거나 반대로 욕구가 좌절되거나 혹은 적절히 지내거나 하는) 성격특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랑과 관심을 받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 동안 동성의 부모가 죽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다.⁵³⁾ 인향은 반대 성의 부모인 아버지로부터 큰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어머니(계모)는 인향에게 아버지를 빼앗아 간 경쟁자로 느껴졌을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는 ‘성적 충동’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향이 아버지에게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학계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성적 충동이란 다른 의미의 정서적 애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과도한 정서적 애착은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며⁵⁴⁾, 인향의 경우도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인형에게 향한 애정 보다 더 큰 애정이 그런 애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계모 정씨의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후처로 들었지만 정작 어머니라는 역할기대만 있을 뿐 남편의 애정을 받기에는 전혀 자식들의 존재감이 너무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딸을 낳게 되어 가정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전혀 자식들 특히 인향은 가장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마침 동냥을 하던 노파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재물에 눈이 먼 그 노파와 함께 인향을 해칠 공모를 하게 되었다.

“어마님 혼령이 계실진대 소녀에 비원극통한 것슬 살피소서. 우리 삼남매 어려서 어마님을 리별하고 슬픔과 한숨으로 지내옵다가, 아바님이 홀노 게서 적막히 지내실 썬 외라 위로 오라비와 아래로 인함이를 거두기 위하여 계모을 웃엇삽든니, 계모 심사 고약하와 것흐로 남 보는 대는 가장 사랑하는 체하든니, 자기 소생 하나 나흔 후부터는 소녀와 인함은 뒤방 구석에다 모리 늦코 자유로 일월도 못 보게 할 썬 외라.....”⁵⁵⁾

위 인용문은 계모가 권한 떡을 먹고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인함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이다. 계모의 간계로 병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모 모두에게 효성스러운 체하나 인함과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계모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하고 있다.

53) 미국 정신분석 학회 편,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289~294.

54) 고승욱,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론 비판」, 『신학전망』 48,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980, pp.47~51.

55) <김인향전>, pp.28~29.

인향은 부명으로 죽으러 가는 순간까지도 끝끝내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계모에게도 직접적으로 따지기도 하며 나름의 항거를 한다. 또한 “어서 오라비를 싸라가라. 부명이 잇거날 네 무삼 말로 발명하는다?”하며 호령하는 계모 앞에서 물러나 바로 부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친 사당에 들어가 통곡을 한다. 동생 인함을 걱정하여 외가댁에 부탁한다고 하며 모든 사건 정황을 혈서로 남기기까지 하며 원한에 가득 찬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에는 도망치라고 하는 인형의 말도 듣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며 자살을 택한다.

물론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외간 남자와 내통하여 임신했다는 누명에 억울하여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화홍련전>에서의 장화처럼 무기력하게 죽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치를 하고 죽었다. 외가에 혈서를 보내기도 하고 계모에게 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버지에게만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만 한다. 이는 인향은 계모와 나눠 갖게 된 아버지의 애정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효성스럽고 착한 딸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향이 자살함으로 해서 계모와의 경쟁에서 표면적으로는 계모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 후 인함이 언니를 따라 죽고 좌수마저 병들어 죽어버린다. 경쟁의 대상이 사라져 버림으로 해서 이미 계모는 한 차례 패배하게 된다. 하지만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경쟁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놓고 진행이 된다.

인향 자매가 죽고난 후, 심천동 연못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고을의 관장이 내려오면 밤중에 놀라 죽거나 병들어 올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 폐읍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전두용이 부사로 내려오자 인향 자매는 원혼으로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정황에 대해 낱알이 고하였고, 이에 전두용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계모를 처형한다. 인향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약혼자 유진위를 찾아가 재생을 원한다. 결국 소설의 말미에 계모 정씨의 죽음과 인향 자매의 재생으로 계모의 두 번째 패배로 끝나게 된다.

<장화홍련전>에서의 경우 경쟁의 대상인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므로 삼처의 몸을 빌어 환생하는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김인향전>의 경우 경쟁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환생을 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약혼자와의 혼인을 이어가기 위해 사망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생되어야 했다. 이는 계모의 첫 패배와도 관련이 있다. 첫 경쟁에서 가장의 애정을 대상으로 ‘어머니 대리인’인 인향과 정씨는 경쟁해야 했다. 죽

은 것은 인향이었지만 좌수는 그 후 인향이 억울하게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게다가 좌수는 정씨에 대한 애정은 돌아오지도 않은 채 사망하였고, 대상의 소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정씨의 패배이다.

인향은 계모와의 경쟁에서 완승을 거두기 위해 원혼으로 등장하여 계모의 처벌을 받아내고 만다. 게다가 정씨가 꿈꿨으나 이루지 못했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생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한다. 계모는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애썼지만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인향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혈서를 쓰고 원혼이 되어서도 신원하였으며 재생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에서의 패배는 고스란히 계모의 것이 된다.

2. 생존에의 욕구

<장화홍련전>에서의 허씨의 경우, 남편 배좌수가 처음부터 그리 탐탁지 않은 상대였으나 후처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후사를 위하여 부득이 취했던 여인이지만 아들 셋을 낳고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김인향전>의 정씨의 경우는 다르다. 김좌수는 죽은 부인 왕씨로부터 일남이녀를 얻어 후사를 잇는 걱정은 없었다. 부인이 죽고난 후 점차 가산을 탕진하는 가정경제운영의 근심으로 홀로 적막공방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인향이 권유하여 계모를 얻게 된 것이다. 허씨를 취하는 목적이 후사를 얻는 것이었다면, 정씨를 취하는 목적은 가정경제운영에 있었다.

정씨는 나이 십팔 세에 최고 십육 세로 나이 차가 비교적 적은 전처 자식들이 있는 김좌수 집안에 육례를 갖추고 후처로 들어오게 되었다.⁵⁶⁾ 이해보아 정씨의 집안은 양반의 가문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집안으로 유추할 수 있다. 후처로 들긴 했으나 정씨의 입장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뿐이다. 정씨는 가정경제를 운영하여 가산을 유지·부흥하기만 하면 역할을 다한 것이 된다. 본가에서 경제적 결핍을 겪은 정씨는 어느정도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가문을 이을 장남인 인형이 존재함으로 인해 집안에서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인향 삼남매를 친자보다 더 기출갓치 하나, 속으로는 늘 양양시심이 썩나지 안이’할 수밖에 없는

56) 인향의 친모 왕씨 부인이 사망했을 때 “이제 인형의 나히 십삼 세요, 인향의 나히 십일 세요, 인함의 나히 구 세라.”라는 부분이 있고 그 후 삼년상을 마치고난 후, 인향이 김좌수에게 후취를 권한다. <김인향전>, p.24.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시집은 지 반 년 만에 태기가 있고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었다. 정씨가 아들을 낳았다면 인향의 집안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딸을 낳았다. 정씨는 장중보옥같이 사랑하였으나 김좌수는 일 때문이라고는 하나 매일 정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을 지경이 되었다.

정씨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열등감 콤플렉스’⁵⁷⁾를 겪을 수 있다. 정상적인 열등감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열등감 콤플렉스는 열등감의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섰다고 할 수 있다.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개인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1870~1937)에 따르면 정씨는 신경증 환자라고 볼 수 있다. 신경증이 시작되는 몇 가지 전형적인 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정씨에게 해당하는 것들은 “① 자신의 성적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② 결혼, ③ 임신, ④ 출산, 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⁵⁸⁾이 있다. 정씨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출산을 위해 후취된 것이 아니라 가산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관리자’의 목적으로 후취되었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후처자리이긴하나 결혼과 임신·출산을 겪었으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의 관심마저 멀어졌다.

신경증 환자는 열등감이나 우월성 콤플렉스를 겪는데, 그들은 자존감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발달시킨다.⁵⁹⁾ 따라서 정씨의 악행은 이런 방어기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어기제’라는 용어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도 등장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위협으로부터 생겨난 불쾌한 경험을 ‘불안’이라고 하였고 그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하지만 애들러의 방어기제는 그 사람의 외부적 환경에 대한 자기보호를 의미한다.⁶⁰⁾ 그런 점에서 <김인향전>의 계모 정씨는 자신이 처한 계모라는 위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의 욕구로 인해 그 상황을 피하고자 발현한 신경증 환자로서의 정씨의 방어기

57) 애들러는 ‘어떤 경우에 정상적 열등감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개인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데 이것을 ‘열등감 콤플렉스’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R.W. Lundin, 『애들러 상담이론』, 노안영 외 역, 학지사, 2001, p.35.

58) 애들러의 책 『신경증의 체제』(1921)에 기술된바, 신경증이 시작되는 성적인 요인은 ‘① 자신의 성적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② 월경의 시작, ③ 성교의 시기, ④ 결혼, ⑤ 임신, ⑥ 출산, ⑦ 연령 증가에 따른 정력의 감소, ⑧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제시하였다. <김인향전>의 계모 정씨의 경우에 모든 경우가 해당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작품상 드러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위의 책, pp.147~148.

59) 위의 책, pp.55~72.

60) 위의 책, p.129.

제는 인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향과 정씨는 처음부터 서로 경쟁상대로서 인식하였다. 정씨의 과거의 환경과 현재 처해있는 환경 모두 정씨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으며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계모 심사 고약하와 것흐로 남 보는 대는 가장 사랑하는 체하든니, 자기 소생하나 나 혼 후부터는 소녀와 인함은 뒤방 구석에다 모리 늦코 자유로 일월도 못 보게 할 썬 외라 고역만 죽도록 식히면서 의복과 음식을 제씨에 주지안사와, 기갈이 자심할 썬외라.....어마님 계실새는 우리들을 애지중지하며, 행여 치위할까 행여 배급풀가 렴레하며 노라도 걱정하시옵더니, 어마님 도라가신 후 계모에게 구박이 자심하니 우리가 득죄하여 그러한가.⁶¹⁾

<김인향전>의 정씨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상황에서 악행의 동기를 전혀 자식과 의합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다. 인향에 의하면 자신의 고난은 계모가 성격이 사악한 사람이고 자식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애지중지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염려해주며 끊임없이 보살펴 주는 존재로서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61) <김인향전>, 앞의 책, pp.28~29.

V. 계모에 대한 작품 속 사회적 평가

1. 본보기식의 처벌

<장화홍련전>에서 계모 허씨는 철산부사 정동호로부터 죄를 심문받다가 결국엔 모두 실토하게 되고 죄 값을 치르게 된다. 이유야 어찌됐건 사람을 죽일 흉계를 꾸몄고 실행에 옮겨 죽은 사람이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전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의 처결을 내리는 것은 부사였지만 그 심문·수사과정에서 부사가 한 일은 장화 자매의 원혼이 알려주는 대로만 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부사는 원혼들의 등장에 놀라지 않고 사연을 들어줄 만한 담력이 있는 건장한 남성일 뿐, 사건자체를 해결할 문제해결능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품속으로서 말은 고기 덩이 한 조각을 올니거늘, 부사ㅣ 밧아 본즉, 그 형용이 이 상허야 거의 스통이 되랴는 틱 갓흔지라.....이날 밤에 장화 형제ㅣ 완연이 부스ㅣ 압해 나아와 지비히고 엇자오되, “소녀 등은 천만의외에 명관을 만나 빅빅무하흔 루명을 싣출가 바라옵더니, 명관도 그 흥녀의 간트한 계교에 속아 유예미결흔 줄 엇지 싣흐얏스리가?”하며 원망흔지라. 부스ㅣ 같으되, “내가 유예미결흔 것이 으니라. 자세스싣히고 럽탐흔 후에 처치헛기로 흔 것이어니와, 그 일에 디허야 무삼 명빅흔 증거가 잇겟나냐?”.....부스ㅣ 왈, “그 낙티흔 것을 엇더케 도사헛면 도켓나냐?”⁶²⁾

위 인용된 부분은 허씨가 부사에게 낙태한 태아라며 증거물을 보이자 부사는 그 고깃덩이가 사람인지 쥐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허씨를 돌려보낸 후, 그날 밤 나타난 장화 자매에게 변명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고 고깃덩이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다. 부사로서 사건의 정황을 알았으니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해나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원혼에게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62) <장화홍련전>, pp.133~134.

다. 비록 담력이 세서 원혼의 사연을 잘 들어주었지만 부사로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화 자매 원혼의 말이 모두 진실이며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한 채 계모를 이미 가해자로 지목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씨가 모든 자백을 하고 나서 장쇠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모성애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목살하고 처결을 내릴 수 있었다.

애초에 철산에 부사로 갔던 자들이 이튿날이면 모두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자원하여 부임해 온 정동호는 위에 보고할 만한 사건과 그 전말, 결과가 필요했다. 자신이 부사로 부임해 올 수 있었던 ‘부사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이 장화 자매의 원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조용히 처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자신이 부임된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따라서 원혼의 사연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한 채 범인을 지목하였고, 자신은 파악도 하지 못한 낙태증거물을 원혼의 도움으로 증명한 후 허씨와 장쇠를 처벌하였다. 보고할 만한 사항은 모두 갖추어 졌기 때문에 허씨가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허씨가 장쇠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애원마저도 귀기울여주지 않았고 보란듯이 공개처형을 하는 것이다.

“흥녀는 능이처참하고, 장쇠는 처교하고, 비무용은 그 쏘의 원을 짜라 안서하고, 장화형제의 신체를 건져 너여 정결한 곳에 안장하고 비를 세워 그 익미한 스실을 밝히라.”
…… 흥녀는 능지처참하야 방곡에 회시하고, 장쇠는 목 밧여 죽이고, 좌슈는 계하에 쏘니고 꾸지저 왓, “네 아모리 무식하나 엇지 그 흥녀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하던 자식을 죽였느냐? 맛당이 가장이 되야 처스 잘못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로되, 너를 죽이면 네 쏘의 혼백이라도 깃버히지 안켓기로 특별이 용서하나니, 너는 회기하야 일후는 그런 일을 힘치 말나.”⁶³⁾

위 인용문은 배좌수 집안에 처결이 내려지는 장면이다. 허씨는 능지처참 당한 것으로 모자라 그 신체 일부를 끌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에 못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한다. 또한 장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행했을 뿐이고, 이미 장화가 물에 빠져 죽을 당시 나타난 범에게 팔다리가 잘리고 두 귀가 잘리는 ‘천벌’을 받아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배좌수는 아무리 장화 자매의 혼백의 원이었다고는 하나 장화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허씨의

63) <장화흥련전>, pp.137~138.

간계에 속아 그리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어 꾸짖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장화홍련전>의 많은 이본 중에서 ‘김광순본’에서는 계모의 처벌이 좀 더 가혹하다. ‘김광순본’에 나타난 다른 내용전개를 살펴보면,

- ① 계모가 장화자매를 박대한 원인을 배좌수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② 홍련이 연못에 빠져 죽는 부분을 비교적 간단히 처리했다.
- ③ 계모의 처벌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라국에서까지 계속된다.

‘김광순본’은 다른 이본과 달리 필사의 시기가 늦고, 한 지역에서 필사된 이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적이거나 후대로 갈수록 계모와 전처 자식간의 갈등을 보편적인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계모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모에 대한 선입견이 보편화되고 그에 대한 문제로 계모와 전처자식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은 <장화홍련전> 이본들에 있어 후대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계모의 처벌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라국에서까지 계속된다’는 점이다. 계모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전국에 본보기가 되도록 회시되었던 것에 모자라 저승에서까지 징벌이 계속된다. 허씨가 살해한 사람이 전처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전국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계모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의 이런 본보기식 형벌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소외당했던 허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향전>에서도 역시 계모 정씨는 부사 전두용으로부터 심문 끝에 죄를 자백하고 도와줬던 무녀 노파와 춘삼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

“너는 애매한 자식을 모해하여 돌이나 죽였스니, 그 죄 엇지 텃디간에 용납하리오. 너을 죽여 후사람을 경계하리라.” 또 무녀 노파를 잡아내여 이로대, “너는 재물을 중히 여여 무죄한 사람을 돌식이나 죽였스니 정녀와 갖치 죽기을 면치 모하리라.” 하시며, 즉시 관채을 호령하여 정녀와 갖치 한 대 동여매고 불측한 죄목을 써서 등의 붓친 후 동문 밧 장거리에 세우고 죄목을 일일이 일너 만인이 알게 한 후 큰 톱으로 쪼셔 죽여 바리고, 춘삼을 잡아 내여 죄상을 설명한 후 감영으로 보내여 삼 년 중역을 식히고, 입분이를 잡아내여 계하에 쫓리고 주인과 부동하여 못된 신바람한 죄로 태형 삼십 도를 짜려 내여 보내니, 도로 관광지인이 모다 상쾌히 역이더라. 이제 부사 박천으로 수소문 하여 인형을 다려다 정녀와 노파, 춘삼이 등을 잡아다 중계한 말을 하며 돈 오백 양을

내여 인형을 주며 왈, “이 돈으로 다시 가뭄을 일우어서 잘 살고, 인향 형제의 분묘을 잘 보살피라.”⁶⁴⁾

위 인용문은 정씨 일당이 처벌을 받고 인형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주는 장면이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후에도 인향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던 계모 정씨와 그 방법을 상세히 일러준 무녀 노파는 같은 죄목으로 톱으로 쳐서 죽이는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수족이 되었던 춘삼과 입분이는 중역과 태형을 받는다. 다른 이본에서 정씨는 큰 상자에 담긴 채 지나는 행인들이 톱을 켤 수 있도록 하여 처형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의 처형장면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처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가족에게는 위로금까지 주어가며 정씨의 악행을 천인공노할 것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모순이나 한계를 모두 계모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계모를 희생양 삼아 본보기로 잔혹하게 처형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모순을 은폐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이에 관련하여 이정원의 연구논문에도 “<장화홍련전>에서도 친진한 자매가 악녀 계모와 어리석은 아버지, 그리고 흉악한 의붓 오라비에게 둘러싸여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은 후처 들이기가 잦은 사회에서 부녀자들이 자기 소생에게 가졌을 연민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것이라”⁶⁶⁾하였다. 후처를 얻고 첩을 두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잔혹하게 처벌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다.

2. 지위 이상의 역할기대

고소설 속에서 계모는 원 가족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유입되는 외부인이다. 유입되는 목적은 있으나 그 목적만 달성한다고 해서 역할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남편에게는 현숙한 아내, 전처 자식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기대가 주어

64) <김인향전>, p.49.

65) 여형옥, 「캐릭터 분석을 통해 본 <장화홍련전>과 콘텐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31.

66) 이정원, 「원혼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p.192.

진다.

<장화홍련전>의 허씨는 후사를 잇게 할 목적으로 들인 후처이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후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들인 사람이다. 게다가 평판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후사를 이으려는 목적은 아들 삼형제를 출산함으로써 달성하게 된다.

<김인향전>의 정씨의 경우는 가산운명을 목적으로 들인 후처이다. 다행히 젊고 아름다운 후처를 얻었다. 이미 장주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딸을 낳아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목적을 가지고 들인 사람들이며 목적을 달성했다. 기존 가족 구성원들은 이들이 목적 이외에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한다.

가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머니가 약점을 가진 경우에는 어머니의 역할은 적극적이 된다.⁶⁷⁾ 계모형 가정소설에서는 부인이 일찍 죽게 되어 편부 결손가정이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계모로 들어오게 되는 여인이 상대적으로 가정경제가 열악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 등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인의 배경이 될 뿐이지 혼인으로 인해 처해진 환경과 입장이 달라졌다. 어려웠던 가정경제는 후처로 들어가면서 해소가 되었지만 한번 상처(喪妻)한 남편과 그의 자식들이 있어 전처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정에 편입되어 현숙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다 ‘계모’라는 지위가 가지는 선입견이 더욱 부담스럽게 된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 전처 자식들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자아이라면 남편의 애정마저 멀어질게 자명하다. 정실부인이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을 후처로 계모가 되었기에 이런 위기감을 겪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계모와 그의 자식들이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계모라는 위치는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계모와 첩은 전처 자식과 정실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기쉬운 처지였다. 실제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일이 많았을 수도 있다. 『흙흙신서』의 기록을 보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을 보면……계모와 전실 아들의 다툼에 관은 어미를 미워하고 자식은 어여삐 여기며, 첩과 큰어미의 다툼에서는 관은 첩을 엮어놓고 큰어미는

67) 정하영, 「고소설에 나타난 모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p.239.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⁶⁸⁾ 하지만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정실부인은 용서받고 계모나 첩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장화홍련전>의 허씨의 낙인효과처럼 ‘계모’나 ‘첩’이라는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모가 등장하는 고소설이나 설화에선 대부분 계모는 악인으로 묘사되어오고 있지만 실상은 전처자식이나 정실부인들이 계모를 모해할 수도 있다. 정실부인 입장에서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편의 애정을 나누어 공유해야 한다는 질투심이 일어 후처나 첩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전처 자식의 입장에서도 후처나 첩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생산할 수도 있으니 경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실부인과 전처 자식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모를 악인으로 만들어야만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68) 정지영, 앞의 논문, pp.430~431.

VI. 결론

본고는 한국 고소설 중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계모’라는 인물상을 재해석해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계모가 간계를 꾸며 전처 자식을 죽게 하기까지의 행동의 원인이 어떤 점에 귀착되고 있는가를 재고함으로써,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고정관념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계모가 속해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외형과 성품의 묘사방법을 살펴 보았다. 계모는 <장화홍련전>에서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고소설 인물묘사 방법에 따라 미인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인물을 묘사할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계모의 작품 속 역할이 악역이기 때문에 악한 성격을 강조해야 했으므로 구체적인 외형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악한 성격이 외형에 반영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외형 묘사 역시 아름답지만 간악한 외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격을 묘사하는 것 역시 작품 속 선인과 대비되기 위해서 간악한 성격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묘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자세한 악행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처 자식의 경우에는 계모와 선악의 갈등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선한 성품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이다. 외형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의 고소설들의 경우에 비해 추상적이고 평이한 수준이다. 계모의 악한 성격에 대비되는 선한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성품을 ‘누구나 인정한다’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였다. 전처 자식의 묘사에서 특이점은 전처 자식들의 태몽과 탄생 시의 기이한 현상을 들 수 있다. 일부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독자로 하여금 전처 자식들의 비극성을 강하게 노출시킴으로써 해서 계모의 악행을 강조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계모의 남편이자 주인공 가족의 가장은 작품들 속에서 거의 묘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형이나 성품보다는 이름이나 벼슬 등의 사회적 위치가 언급되는 정도이다. 또

한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 중에 지극히 감정적인 모습이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외적인 모습의 표현들과 우유부단한 모습의 묘사로써 계모와 전처 자식간의 갈등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는 계모들의 외형묘사에서 유일하게 추한 외형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추한 외형 묘사와 더불어 평소 저질러온 악행을 나열함으로써 장화 자매와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용모는 곧 심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작품 속 허씨의 주변인들 또한 허씨에 대해 이미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허씨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으며 비뚤어진 성격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런 ‘낙인효과’에 의해 허씨는 후처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전처 자식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선입견을 받아야만 했다. 허씨는 추한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얼굴이 추하기 때문에 성품도 악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고스란히 듣고 자라 그러한 성격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낙인효과에 의한 주변인들의 선입견만으로는 허씨의 악행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자라온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허씨는 자신을 탐탁치 않아하는 배좌수집에 후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정경제사정을 가지고 있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경제적인 열등감을 가진 상태에서 가장 의존하게 될 남편마저 자신을 후사생산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이’ 들인 것이다.

장화 자매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중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 애착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새어머니가 생겼음에도 모녀관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친모만을 생각하며 울기만 한다. 또한 아버지의 후취로 배신감을 느껴 더욱 자매간의 애착과 집착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아버지 배좌수 역시 관계개선의 여지도 없이 전처 자식만을 싸고 돌며 허씨에게 경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허씨가 아무리 후사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들인 후처이고 아들 삼형제를 낳아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는 하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허씨는 외부에서 유입된 외부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열등감과 소외감이 축적되어 있다가 남편과 장화 자매가 하는 대화를 듣고 간계를 꾸미는 것으로 폭발하게 되어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인향전>의 계모 정씨는 어린 나이에 가산 운영의 목적으로 후취로 들어왔다. 그 집안에는 장남과 장남보다 더 장남같은 인향 등 나이차이도 얼마되지 않는 전처 자식

이 셋이나 있다. 문제는 그 인향이다. 인향은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후취를 권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가정 내에서 가장 다음으로 실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향은 막상 정씨가 계모로 들어오고 난 후 위기감을 갖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모습에서 인향은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보인다. 인향이 정씨의 간계로 인해 죽으라는 부명을 받들 때에도 혈서를 남길 만큼 악에 반혀있었지만 끝끝내 아버지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인향의 죽음으로 이들의 경쟁은 정씨의 승리로 보이지만 그 후 인함과 좌수마저 죽어버려 정씨에게는 사실상 패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인향의 원정으로 인해 결국 정씨는 처벌당했으며 인향 자매는 죽었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재생하기에 이른다.

인향과의 경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정씨는 가산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후취되었고, 낳은 아이도 딸이므로 가정 내에서 입지가 매우 좁았다. 정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상황 때문에 ‘열등감 콤플렉스’를 겪었을 수 있다. 그런 콤플렉스로 인해 정씨는 신경증 환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신경증 환자의 경우 자존감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발달시킨다. 따라서 정씨는 생존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발달시켰으며, 정씨의 악행은 이 방어기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계모들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작품 속 사회적 평가는 그들에게 냉혹하기만 하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상 후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후취하는 대상 역시 신분에 맞추어야 했기에 후처의 가정 내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처의 경우 혈연지간이 아닌 전처 자식을 본인의 자식과 다름없이 정성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후처가 해내야 할 역할은 전처의 역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 내 지위와 막중한 역할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모’에 대한 선입견이 전처 자식을 기르는 후처들을 악인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의 후처들에게 사회는 냉정했고 잔혹했다. 이미 원혼이 되어버린 전처 자식들의 원한만 해결하고자 했지 후처가 고백하는 전후사정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에 또 있을 계모들에게 경고하고자 본보기식의 처벌을 하기에 이른다.

계모형 가정소설이 존재하고 이쁜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읽히고 있고 작품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전처 자식이 계모의 간계에 죽게 된 이상, 계모는 곧 ‘악인’이라는 통념을 완전히 벗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이혼과 재혼가정이 비일비재하므로 또다른 형태의 계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착하거나 나쁜 사람은 없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전후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며 언젠가 또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선입견이 또다른 악인을 양성해 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악인으로만 평가되었던 고소설 속 계모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계모는 곧 악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고소설 속 인물들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장화홍련전>,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 고전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pp.105~145.

<김인향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pp.21~54.

▷ 단행본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론』, 국학자료원, 1997.

김기동·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5, 서문당, 1984.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김필진,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상담』, 학지사, 2007.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_____, 『한국고대소설론과 사』, 집문당, 1986.

신재홍, 『고전 소설의 착한 주인공들』, 태학사, 2012.

신해진,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장덕순,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박이정, 1995.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문학』, 일조각, 1999.

단성식, 『역주 유양잡조』 2, 정환국 역, 소명출판, 2011.

미국 정신분석 학회 편,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Carver, C.S.·Scheier, M.F., 『성격심리학:성격에 대한 관점』, 김교헌·심미영·원두리 역, 학지사, 2012.

Fonagy, P.,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반건호 역, 도서출판 빈센트, 2005.
Freud, S., 『정신분석 입문』, 이규환 역, 육문사, 2012.
Lundin, R.W., 『애들러 상담이론』, 노안영 외 역, 학지사, 2001.
Noel, J.B.,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최애영·심재중 역, 동문선, 2001.

▷ 논문

고승욱, 「프로이드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이론 비판」, 『신학전망』 48,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980, pp.43~53.
공인숙·류안진,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pp.1~10.
구본권,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 『논문집』 25-1, 강남대학교, 1994, pp.273~304.
권순금, 「누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까 - <장화홍련전>」, 『논』 20, 초암네트웍스, 2007, pp.32~39.
김광순,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7,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pp.261~294.
김귀석,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인간 '교씨'연구」, 『한국언어문학』 28, 한국언어문학회, 1990, pp.269~287.
_____, 「조선조 가정소설에 등장한 '계모'에 대한 인물연구」, 『인문과학연구』 13,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pp.61~77.
_____, 「고소설에 등장한 계모 연구」, 『전통문화연구』 4,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6, pp.105~120.
김기현, 「<장화홍련전>의 한 이본」, 『어문논집』 14,15-1, 안암어문학회, 1973, pp.157~166.
김열규, 「이조소설에 있어서의 악인형의 검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pp.5~15.
김유심·이희연, 「성인의 분리-개별화와 지각된 母의 양육태도가 방어기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6, pp.210~235.
김인아, 「청소년의 심리기제에 미치는 인지양식의 매개적 조절효과:불안, 모-자녀 의

- 사소통, 방어기제 간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pp.51~67.
- 김인아, 「특성불안과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어기제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한국청소년학회, 2008, pp.235~255.
- 김재용, 「계모형 인물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12,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7, pp.135~147.
- 김정옥, 「방어기제 성숙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5-4, 한국심리학회, 2003, pp.747~763.
- 김정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준영, 「전동홀과 장화홍련전», 『전라문화논총』 5,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2, pp.1~8.
-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pp.91~113.
- 김현주, 「조선조 가정소설의 갈등 요인 연구 - 쟁충형·계모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나금자,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화홍련전>의 문학치료적 접근», 『태릉어문연구』 1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0, pp.95~115.
- 문성호·심혜숙, 「대학생의 대상관계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와 자아분화수준», 『상담학연구』 3-1, 한국상담학회, 2002, pp.7~22.
- 박갑수, 「고소설의 안면 묘사», 『국어교육학연구』 8, 국어교육학회, 1998, pp.5~26.
-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유형과 악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5,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pp.99~127.
- _____,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인희, 「계모형 가정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태상,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의미», 『동방학지』 36: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pp.245~277.
- 배지연, 「MMPI 하위척도가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자아의 방어기제 간의 관계», 『심리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 1992, pp.4~16.

-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5-1,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pp.121~145.
- 서은아, 「<장화홍련> 이야기의 문학치료적 효용」, 『문학치료연구』 7,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pp.91~115.
- _____, 「<장화홍련전>의 가족갈등과 문학치료적 활용」, 『국어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2009, pp.239~261.
- 서혜은, 「<장화홍련전> 이본 계열의 성격과 독자 의식」, 『어문학』 97, 한국어문학회, 2007, pp.387~418.
- 손광훈, 「자아방어기제의 특성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S,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pp.147~174.
- 신해진, 「<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 - 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11,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pp.33~62.
- 심우장,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죽음의 제의적 해석」,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pp.289~323.
- 양은주·류인균,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정신병리학』 9-1,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2000, pp.3~15.
- 여형옥, 「캐릭터 분석을 통해 본 <장화홍련전>과 콘텐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우상우·장문선, 「초기대상관계와 경계선 성격의 관련성에서 자기개념,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9-2, 한국심리학회, 2010, pp.453~469.
- 위후량, 「고대소설의 인물형 연구」, 『논문집』 5, 광주대학교, 1988, pp.7~19.
- 윤정안, 「장화홍련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김인향전>의 의미 형상화 방식 : <장화홍련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pp.307~330.
- 이강엽, 「악의 초탈, 관용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pp.219~257.
- 이경임, 「쟁쟁형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167~188.
- _____, 「<장화홍련전> 연구」, 『문명연지』 5-2, 한국문명학회, 2004, pp.31~60.
- _____, 「계모형 소설 연구 :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113~135.
-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孝烈誌>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위상」, 『어문학』 80, 한국어문학회, 2003, pp.421~443.
- 이범용,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해결 양상에 대한 연구 - 가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성권, 「<장화홍련전>의 판소리 사설적 성격 - <가람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pp.251~279.
- _____,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과 그 성격 - 계모형 가정소설과 가문소설 효열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pp.29~65.
-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pp.271~291.
- 이완형, 「<옹고집전>의 장치구조와 방어기제적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pp.329~353.
-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정원, 「<장화홍련전>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99~135.
- _____, 「원혼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pp.179~197.
- _____, 「영화 <장화, 홍련>에서 여성에 대한 기억과 실제 - 고소설 <장화홍련전> 이본 연구 관점에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pp.71~91.
- 이종서, 「'전통적' 계모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pp.135~163.
-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 - <장화홍련전>과의 비교

- 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pp.137~167.
- 이현아, 「<김씨열행록>의 구조적 특징과 여성인물들의 성격형상화」,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형미, 「계모형 가정소설의 모자 갈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희, 「한국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의 정신분석적 주석」, 『정신건강연구』 9,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0, pp.58~67.
- 장미화, 「송사소설에 나타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pp.291~323.
- 전성탁, 「장화홍련전의 관련설화고」, 『석우논문집』 2-1, 춘천교육대학교, 1974, pp.1~23.
- _____, 「장화홍련전의 이본고찰」, 『논문집』 16, 춘천교육대학교, 1976, pp.1~29.
- 정민·이숙자·장안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에니어그램연구』 2-2, 한국에니어그램학회, 2005, pp.51~72.
- 정은실, 「그림형제 동화에 나타난 여성 성숙의 문제 - 백설 공주, 신데렐라, 장미공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일승,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특징 고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지영, 「장화홍련전 :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pp.422~441.
- _____, 「조선후기 호주승계 방식의 변화와 종법 질서의 확산: 17·8세기 『단성호적』에 나타난 과부와 그 아들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2, 한국여성학회, 2002, pp.5~35.
- 정하영, 「고소설에 나타난 모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pp.221~249.
- 정혜심, 「계모계소설 연구 - 계모관의 편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현, 「고대소설 속의 여인형」, 『문호』 1-1, 건국대학교, 1960, pp.115~126.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1, 민족문학

- 사학회, 1999, pp.102~131.
-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 초기소설과 영웅소설의 중심으로」,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pp.191~216.
- 차은경, 「고전소설에 나타난 악녀형 인물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혜정·장문선,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한국상담학회, 2010, pp.539~554.
-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pp.199~237.
- 한혜림·이기학,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사용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1, 한국심리학회, 2003, pp.467~468.